[국 어]

해설 위원: 오 대 혁 교수

본 문서 내용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공무원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총평 >

2022년도 지방직 국어 비문학 독해가 부상하다

2022년도 지방직 국어는 이전과 다른 PSAT 스타일의 문제가 3문제 정도 더해지면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만한하다.

국문법이나 어문규정은 여전히 합쳐서 5문항에 머물렀고, 출제 난도도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비문학 독해 문제를 만만하게 여기며 연습이 부족했던 수험생들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다. 예컨대 비문학 독해에서 논증 추론 문제가 2개나 출제되었는데, 쉽게 생각하여 답을 맞힌 경우도 있었겠지만 낯선 형식에 당황한 수험생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가직 7급 국어가 PSAT 언어논리로 변화하면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독해 문제를 출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제 난이도 측면에서 난도 上의 문제가 25%나 차지하고, 난도 中의 문제가 50%나 차지하여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난도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국어에서 90점 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전에 비해 국어에서 2문제(10점) 정도는 합격선이 내려갈 것으로 짐작된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찬란한 서광이 비치기를 기원한다.

- 오대혁 배상(拜上)

2022년도 지방직 영역별 출제 분포

출제 영역	문항 수 (2021/2020/2019/2018)	출제 포인트(난도)
국문법	3(1/3/3/4)	[어휘론] 난도 中 [어휘론] 난도 上 [담화론] 난도 下
어문규정	2(2/2/3/3)	[한글맞춤법] 난도 下 [어법-언어예절] 난도 下
속담, 관용어, 한자	2(2/2/2/2)	[한자] 난도 上 [한자성어] 난도 中
비문학	9(10/8/8/7)	[쓰기-글의 진술방식] 난도 下 [쓰기-퇴고] 난도 下 [쓰기-문단의 순서] 난도 中 [독해-내용의 일치] 난도 中 [독해-내용의 일치] 난도 中 [독해-주제] 난도 上 [독해-내용 파악] 난도 中 [독해-논증-추론] 난도 上 [독해-추론] 난도 上
문학	4(5/5/4/4)	[고전시가] 난도 中 [고전소설] 난도 中 [현대시] 난도 中 [현대소설] 난도 中

2022년도 난도별 출제 비중

난도	문항 수(2021/2020)	영역
上	5(3/4)	국문법 1, 한자 1, 독해 3
中	10(9/10)	국문법 1, 한자 1, 비문학 4, 문학 4
下	5(8/6)	국문법 1, 어문규정 2, 비문학 2

문 1. 언어 예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② (시누이에게) 고모, 오늘 참 예쁘게 차려 입으셨네요?
③ (처음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박혜정입니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키며) 이쪽은 제 부인입니다.

1. [정답] ③
[어법-언어예절] 난도 下
언어예절에서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입니다."라고 한다. "안녕하십니까?"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상대방에게 소개한 후에 쓰는 것이 좋다.
〈오답 피하기〉
① →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간접 높임의 형태.
② → (시누이에게) 아가씨, 오늘 참 예쁘게 차려 입으셨네요?: 자녀들에게 '고모'이지 자신에게는 '아가씨'가 된다.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도 이제는 허용된다.
④ →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키며) 이쪽은 제 아내/집사람입니다.: '부인'은 타인의 배우자를 높여 부르는 표현이다.

문 2.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① 묘사
② 설명
③ 유추
④ 분석

2. [정답] ①
[글의 진술방식] 난도 下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묘사'가 사용되었다.
〈오답 피하기〉
② 설명은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진술방식이다.
③ 유추는 구조와 속성이 유사함을 통해 같음을 말하는 추론 방식이다.
④ 분석은 설명 가운데 전체의 구성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문 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있는 창작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연출자가 주관적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일지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이미 공연 예술 무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기법일 수 있고,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요소와 보호 가능한 요소인 표현이 얽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셰익스피어를 보자. 그의 명작 중에 선대에 있었던 작품에 의거하지 않고 탄생한

작품이 있는가. 대부분의 연출자는 선행 예술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창작에 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따라서 무대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경우이고,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작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① 무대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②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독보적인 무대연출 작업에 저작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④ 저작권법의 목표는 창작자의 창작을 장려하고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3. [정답] ③
[독해-내용의 일치] 난도 中
제시문 가운데 "무대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경우이고,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진술을 보면 독보적 무대연출에 저작권을 부여하면 후발 창작에 방행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선택지 ③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진술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②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진술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④ 마지막 문장의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작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라는 진술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문 4. ㉠ ~ ㉣의 고쳐 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파놉티콘(panopticon)은 원형 평면의 중심에 감시탑을 설치해 놓고, 주변으로 빙 둘러서 죄수들의 방이 배치된 감시 시스템이다. 감시탑의 내부는 어둡게 되어 있는 반면 죄수들의 방은 밝아 교도관은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교도관을 바라볼 수 없다. 죄수가 잘못했을 때 교도관은 잘 보이는 곳에서 처벌을 가한다. 그렇게 수차례의 처벌이 있게 되면 죄수들은 실제로 교도관이 자리에 ㉠ 있을 때조차도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의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이렇게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 다수가 통제된다는 점에서 파놉티콘의 디자인은 과거 사회 구조와 본질적으로 같았다.

현대사회는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시놉티콘(synopticon)의 시대가 되었다. 시놉티콘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인터넷의 ㉢ 동시성이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언론과 통신이 발달했고, ㉣ 특정인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판적 인식 교류와 부정적 현실 고발 등 네티즌의 활동으로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전환이 일어났다.

① ㉠을 '없을'로 고친다.
② ㉡을 '소수'로 고친다.
③ ㉢을 '익명성'으로 고친다.
④ ㉣을 '누구나가'로 고친다.

4. [정답] ②
[퇴고] 난도 下
"파놉티콘(panopticon)은 원형 평면의 중심에 감시탑을 설치해 놓고, 주변으로 빙 둘러서 죄수들의 방이 배치된 감시 시스템"이라는 진술이 있다. 그것은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소수가 아닌 다수가 통제됨을 말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맞는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교도관이 자리에 없을 때조차 스스로 감시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없을'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다음 문장의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통해 '익명성(匿名性)'임을 추정.
④ 전후 문맥을 통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된 것이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 5.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산(山)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시메산골
영(嶺)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길은
㉡ 칠팔십 리(七八十里)
돌아서서 육십 리는 가기도 했소

㉢ 불귀(不歸), 불귀, 다시 불귀
삼수갑산에 다시 불귀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십오 년 정분을 못 잊겠네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 위에서 운다
삼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 김소월, 「산」 –

① ㉠은 시적 화자와 상반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② ㉡은 시적 화자에게 놓인 방랑길을 비유한다.
③ ㉢은 시적 화자의 이국 지향 의식을 강조한다.
④ ㉣은 시적 화자가 지닌 분노의 정서를 대변한다.

5. [정답] ②
[현대시] 난도 中
'칠팔십 리(七八十里)'는 하룻길, '삼수갑산'이라는 그리움의 대상으로 가려 하지만 가지 못해 떠돌아야 하는 방랑길을 비유한다.

김소월의 〈산〉
1. 주제 : 떠나야 하는 상황과 미련, 이별의 정한과 그리움
2. 구성상 특징: 수미상관 기법: 시상의 통일과 안정감, 운율감 형성
   운율상 특징 : 민요조 율격.
3. 출전: 『개벽』40호, 1923.10.
4. 구성 : ① 기(1연) : 산새의 울고 있는 모습
   ② 승(2연) : 길고 긴 눈길의 여정(旅程)
   ③ 전(3연) : 떠나기를 주저하는 심정
   ④ 결(4연) : 잊을 수 없는 삼수갑산

〈오답 피하기〉
① '산새'는 오리나무 위에서 울고 있는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깊은 산이 그리워서이다. 그런데 높은 고개를 넘어야 하므로 가지 못해 울고 있는 것. 시적 화자도 그와 같은 처지라 볼 수 있어 감정이입되고 있는 것이지 상반된 처지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③ '불귀'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국 지향은 말이 안 된다.
④ 시적 화자가 지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함에 의한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문 6.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쑤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에서 –

① 정 씨는 영달이 백화와 함께 떠날 것을 권유했군.
② 백화는 영달의 선택이 어떤 것일지 몰라 불안했군.
③ 영달은 백화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떠나지 않았군.
④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말한 것은 정 씨와 영달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군.

6. [정답] ③
[현대소설] 난도 中
정 씨가 같이 가는 것이 어떠냐는 물음에 영달이의 대답은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이다. 이는 영달이 백화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떠나지 않았다는 ③의 이해가 잘못된 것임을 알려준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진술이다.

문 7.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과거에는 고통만을 안겨 주었던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동북아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나) 100년 전 우리는 수난과 비극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해양으로 나가려는 세력과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세력이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 지금은 무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과 세계 선두권의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물류 기반도 손색이 없습니다.

(라) 그 아픔은 분단으로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불행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변방으로 머물러 왔던 동북아시아가 북미·유럽 지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라) – (나) – (다)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라) – (다) – (가)

7. [정답] ④
[문단의 순서] 난도 中
연결 어휘들을 고려하면서 순서를 정해야 한다.
(나) 100년 전 국권 상실의 역사가 있었다.
(라) 앞선 문단의 마지막 표현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이어서 "그 아픔은 분단으로 이어져"라고 하며 이어가고 있다. 아픔을 딛고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말했다.
(다) 경제를 받아서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그러함을 말하고 있다.
(가)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문 8.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예은 씨. 오늘 회의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
> B: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메일로 공유하면 되겠지요?
>
> A: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
> B: 네. 그럼 회의 내용은 개조식으로 요약하고, 팀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팀원에게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 A: 예은 씨. 그런데 개조식으로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 B: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네요. 개조식으로 요약할 경우 회의 내용이 과도하게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① A는 B에게 내용 요약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② A와 B는 대화 중에 공감의 표지를 드러내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
③ B는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 대한 A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이 다른 입장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A는 개조식 요약 방식이 회의 내용을 과도하게 생략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8. [정답] ②
[담화론] 난도 下
"A: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라는 표현이나 "B: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네요."라는 표현을 통해 대화 중 공감의 표지를 드러내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B에게 내용 요약 방식이 이해가 어려울 듯하다면서 서술형으로 풀어 쓰기를 말하고 있다.
③ B는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 대한 A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과 같은 입장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A가 아니라 B가 개조식 요약 방식이 회의 내용을 과도하게 생략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올해 A시는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 의회 교실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A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은 의회 교실의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운영 방안에는 지방자치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 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시의회 의장은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장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최근 A시는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주제로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 의회 교실을 운영하였다. 참석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이 되어 의원 선서를 한 후 주제에 관한 자유 발언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전자 투표로 표결 처리하였다. 학생들이 의회 과정 전반에 대해 체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① A시에 있는 학교의 만 19세 미만 재학생은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다.
② A시의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 교실의 민주 시민 소양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A시에서 시행된 청소년 의회 교실에서 시의회 의장은 본회의장 시설을 사용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④ A시의 올해 청소년 의회 교실은 의원 선서, 조례안 상정, 자유 발언, 찬반 토론, 전자 투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9. [정답] ④
[독해] 난도 中
선택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였다.
A시에서 올해 있었던 청소년 의회 교실에서는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주제로 운영된 것으로 나온다. 의원 선서, 주제에 관한 자유 발언, 관련 조례안 상정, 찬반 토론, 전자 투표 표결 처리 순서로 진행되었다. 자유 발언이 실제로 의원 선서 바로 다음에 나왔으므로 부적절하다. 나머지는 맞는 진술들이다.

문 10.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난: 한자어 '간난'에서 'ㄴ'이 탈락하면서 된 말이다.
② 어리다: '어리석다'는 뜻에서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바뀐 말이다.
③ 수탉: 'ㅎ'을 종성으로 갖고 있던 '숳'에 '닭'이 합쳐져 이루어진 말이다.
④ 점잖다: '의젓함'을 나타내는 '점잖이'에 '하다'가 붙어 형성된 말이다.

10. [정답] ④
[어휘론] 난도 中
'점잖다'는 '젊지 아니하다'가 축약돼 '젊잖다'로, 다시 '점잖다'로 변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언행이 묵중하고 야하지 아니하다. 품격이 속되지 아니하고 고상하다. 몸가짐이 가볍거나 까불지 않고 예절 있게 듬직하고 의젓하다' 등으로 의미가 변화했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간난(艱難)에서 'ㄴ'이 탈락하면서 된 말이다.
② '어리다'는 '어리석다'(愚)는 뜻에서 '나이가 적다'(幼)는 뜻으로 바뀐 말이다.
③ '숳+닭'이 합쳐져 수탉이 된 것으로 본다.

문 1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예전에 '혐오'는 대중에게 관심을 끄는 말이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익숙하게 듣는 말이 되었다. 이는 과거에 혐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문제가 폭발하듯 가시화되었다는 뜻이다. 혐오 현상은 외계에서 뚝 떨어진 괴물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거기엔 자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반드시 선행한다.
>
>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의 사항이 있다. 혐오나 증오라는 특정 감정에 집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혐오가 주제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니, 얼핏 이율배반처럼 들리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왜 혐오가 나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다. "나쁜 감정이니까 나쁘다.",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게 만드니까 나쁘다." 이 대답들은 분명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우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진다.
>
>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각종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사회문제의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발현이며 결과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혐오는 증상이다. 증상을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면 곤란하다. 우리는 혐오나 증오 그 자체를 사회악으로 지목해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① 혐오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혐오 현상은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③ 혐오 현상을 만들어 내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④ 혐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사회문제는 잘 보인다.

11. [정답] ③
[독해-주제] 난도 上
주장하는 글에서 주제는 글쓴이의 주장을 말한다. 제시문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문단: 혐오 현상이 가시화되는 현실
2문단: 혐오나 증오라는 특정 감정에 집착해선 안 된다.
3문단: 각종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

이러한 내용들을 포괄하는 글쓴이의 주장은 혐오 현상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 1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有此茅亭好 이 멋진 ㉠초가 정자 있고
> 綠林細徑通 수풀 사이로 오솔길 나 있네
> 微吟一杯後 술 한 잔 하고 시를 읊조리면서
> 高座百花中 온갖 꽃 속에서 ㉡높다랗게 앉아 있네
> 丘壑長看在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그대로건만
> 樓臺盡覺空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 있구나
> 莫吹紅一點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
> 老去惜春風 늙어갈수록 ㉣봄바람이 안타깝구나
> – 심환지, 「육각지하화원소정염운(六閣之下花園小亭拈韻)」 –

① ㉠: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매개하고 있다.
② ㉡: 시적 화자의 초연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 자연에 대비되는 쇠락한 인간사를 암시하고 있다.
④ ㉣: 꽃잎을 흔드는 부정적 이미지로 기능하고 있다.

12. [정답] ①
[고전시가] 난도 中
화자는 숲속에 있는 초가 정자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산과 계곡은 변함이 없건마는 누대는 비어 있고, 늙어가며 봄바람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이와 같은 시의 흐름을 고려하여 시어의 의미가 옳은지 파악해야 한다. ㉠ 초가 정자는 화자가 술을 마시며 앉아 있는 공간으로 시상 전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라기보다는 공간적 전개를 매개하는 대상이라 말했어야 옳다. 나머지는 맞는 진술이다.

문 13. 밑줄 친 단어 중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 선생님께서는 <u>슬하</u>에 세 명의 자녀를 두셨다고 한다.
② 그는 <u>수완</u>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③ 여러 팀이 우승을 위해 긴 시간 동안 <u>각축</u>을 벌였다.
④ 사업단의 <u>발족</u>으로 미뤄 뒀던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13. [정답] ③
[어휘론] 난도 上
각축은 '角逐'이라 쓴다. '뿔 각'이 들어 있으니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은 들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膝(무릎 슬) 下(아래 하): 사람의 몸 중 무릎이 나와 있다. '슬하'는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어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이른다.
② 手(손 수) 腕(팔 완): 1. 일을 꾸미거나 치러 나가는 재간. 2. 손목의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
④ 發(쏠 발) 足(발 족): 어떤 조직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일이 시작됨. 또는 그렇게 일을 시작함.

문 1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u>계월</u>이 여자 옷을 벗고 갑옷과 투구를 갖춘 후 용봉황월(龍鳳黃鉞)과 수기를 잡아 행군해 별궁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군사를 시켜 보국에게 명령을 전하니 보국이 전해져 온 명령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러나 보국은 예전에 계월의 위엄을 보았으므로 명령을 거역하지 못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문에 대령했다.
> 이때 계월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 "보국이 어찌 이다지도 거만한가? 어서 예를 갖추어 보이라."
> 호령이 추상과 같으니 군졸의 대답 소리로 장안이 울릴 정도였다. 보국이 그 위엄을 보고 겁을 내어 갑옷과 투구를 끌고 몸을 굽히고 들어가니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 – 작자 미상, 「홍계월전」에서 –
>
> (나) 장끼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여 ㉡<u>까투리</u> 홀로 경황없이 물러서니, 장끼란 놈 거동 보소. 콩 먹으러 들어갈 제 열두 장목 펼쳐 들고 꾸벅꾸벅 고개 조아 조츰조츰 들어가서 반달 같은 혀뿌리로 들입다 꽉 찍으니, 두 고패 둥그레지며 … (중략) … 까투리 하는 말이
>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의 말 잘 들어도 패가하고, 계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
> 까투리 거동 볼작시면, 상하평전 자갈밭에 자락머리

풀어 놓고 당굴당굴 뒹굴면서 가슴치고 일어앉아 잔디 풀을 쥐어뜯어 애통하며, 두 발로 땅땅 구르면서 붕성지통(崩城之痛) 극진하니,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친구 벗님네들도 불쌍타 의논하며 조문 애곡하니 가련 공산 낙망천에 울음소리뿐이로다.

— 작자 미상, 「장끼전」에서 —

① ㉠과 ㉡은 모두 상대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② ㉠이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는 반면, ㉡은 옹호하고 있다.
③ ㉠이 갈등 상황을 타개하는 데 적극적인 반면, ㉡은 소극적이다.
④ ㉠이 주변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반면, ㉡은 적대적인 반응을 얻는다.

14. [정답] ③
[고전소설] 난도 中
'계월'은 거만한 '보국'에 대해 명령을 내리고, 호령을 하는 등 갈등 상황을 타개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까투리'는 '장끼'가 말을 듣지 않고 콩을 찍어 먹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고, 마침내 '장끼'가 죽자 통곡한다. '까투리'는 문제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문 15.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① 습관처럼 중요한 말을 <u>되뇌이는</u> 버릇이 있다.
② 나는 친구 집을 찾아 골목을 <u>헤매이고</u> 다녔다.
③ 너무 급하게 밥을 먹으면 목이 <u>메이기</u> 마련이다.
④ 그는 어린 시절 기계에 손가락이 <u>끼이는</u> 사고를 당했다.

15. [정답] ④
[한글맞춤법] 난도 下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다'가 맞는 표현이다. 피동사 '끼이다'는 '끼다'라고 바꿔 써도 된다.
〈오답 피하기〉
① 되뇌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말하다. '되뇌이다'는 비표준어이다.
② 헤매다: 갈 바를 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헤매이다'는 비표준어다.
③ 메다: 어떤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잘 나지 않다. '메이다'는 잘못.

문 16.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시대 영웅으로 <u>소방관(消防官)</u>이 있다.
② <u>과학자(科學者)</u>는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다.
③ 그는 인공지능 연구소의 <u>연구원(硏究員)</u>이 되었다.
④ 그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u>변호사(辯護事)</u>로 선임되었다.

16. [정답] ④
[한자] 난도 上
변호사는 '辯護士'라고 써야 옳다. 선비 사(士)와 '일 사(事)'를 구분하면 되는 문제다. 辯(말 잘할 변) 護(보호할 호) 士(선비 사).

스승 사(師): 의사(醫師), 강사(講師.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
선비 사(士): 변호사(辯護士), 검사(劍士), 강사(講士. 대학-)
토지신 사(社): 장의사(葬儀社)

〈오답 피하기〉
① 消(사라질 소) 防(둑 방) 官(벼슬 관)
② 科(과정 과) 學(배울 학) 者(놈 자)
③ 硏(갈 연) 究(궁구할 구) 員(수효 원)

문 1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거론되어 왔지만, 의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롭고 논쟁적인 원인은 페스트이다. 페스트가 유럽의 인구를 격감시킴으로써 사회 경제 구조가 급변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재래의 전통이 지니고 있던 강력한 권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예컨대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질병을 예측하지 못한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불신하게 되었으며, 페스트로 인해 '사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선량한 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죽는 것을 보고 이전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신과 교회의 막강한 권위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에 대한 경험은 사람들을 여러 방향에서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는 광경에 익숙해졌고, 인간의 유해에 대한 두려움 또한 점차 옅어졌다. 교회에서 제시한 세계관 및 사후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삶과 죽음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기 시작했다.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은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신에 대한 무조건적 찬양과 복종 대신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사유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술사에서 두드러지게 포착된다. 인간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되었고, 인체를 묘사하는 다양한 화법도 등장했다. 인체에 대한 관심은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여전히 신봉하던 의사들에게 해부학적 지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당시의 미술가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데 골몰했다.

① 전염병의 창궐은 르네상스의 발생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② 페스트로 인한 선인과 악인의 무차별적인 죽음은 교회가 유지하던 막강한 권위를 약화시켰다.
③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고대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④ 르네상스 시기에 해부학은 의사들보다도 미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17. [정답] ③
[독해-내용 파악] 난도 中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는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다양한 화법을 등장하게 했고,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데 골몰하게 만들었다. 나머지는 맞는 진술들이다.
〈오답 피하기〉
①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거론되어 왔지만, 의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롭고 논쟁적인 원인은 페스트이다."라는 표현이 이를 뒷받침한다.
② "페스트로 인해 '사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선량한 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죽는 것을 보고 이전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신과 교회의 막강한 권위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었다."라는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④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여전히 신봉하던 의사들에게 해부학적 지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당시의 미술가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데 골몰했다."라는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 18. 밑줄 친 부분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는 글씨를 쓰다 남은 먹을 버리기 아까워 그린 듯이 갈필(渴筆)의 거친 선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정말 큰 기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서툴러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대가의 덤덤한 듯, 툭 던지는 한마디는 예리한 비수가 되어 독자의 의식을 헤집는다.

① 巧言令色
② 寸鐵殺人
③ 言行一致
④ 街談巷說

18. [정답] ②
[한자성어] 난도 中
"툭 던지는 한마디가 예리한 비수가 되어 독자의 의식을 헤집는다는 것"은 촌철살인과 관련을 맺는다.
* 寸(마디 촌) 鐵(쇠 철) 殺(죽일 살) 人(사람 인): 한 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오답 피하기〉
① 巧(공교할 교) 言(말씀 언) 令(영 령(영)) 色(빛 색):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③ 言(말씀 언) 行(갈 행) 一(한 일) 致(보낼 치):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음. 또는 말한 대로 실행함.
④ 街(거리 가) 談(말씀 담) 巷(거리 항) 說(말씀 설): 거리나 항간에 떠도는 소문.

문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들은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으로 소위 '검증 원리'라고 불리는 것을 제안했다. 검증 원리란,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 두 문장을 예로 생각해 보자.
>
> (가) 달의 다른 쪽 표면에 산이 있다.
>
> (나) 절대자는 진화와 진보에 관계하지만, 그 자체는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않는다.
>
> 위 두 문장 중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록 현실적으로 큰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가)는 분명히 경험을 통해 진위를 밝힐 수 있다. 즉 우리는 (가)의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근거하여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가)는 검증할 수 있고, 유의미한 문장이라고 판단한다. 그럼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나)의 진위를 확정할 수 있는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그런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나)는 검증할 수 없고 과학에서 사용될 수 없는 무의미한 문장이라고 말한다.

①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②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
③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④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19. [정답] ①
[독해-논증-추론] 난도 上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들은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으로 소위 '검증 원리'라고 불리는 것을 제안했다."라는 진술을 통해 부정 표현이라 할 ①이 참이 된다. 추론에서 대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p → q, ~q → ~p'의 형태를 보여준 것이다.
> 과학 → 유의미한 문장, ~유의미한 문장(무의미한 문장) → ~ 과학

〈오답 피하기〉
②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 거짓이다.
과학이 되려면 유의미한 문장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과학의 문장들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유의미한 것들은 여럿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과학의 문장이라 해야 맞다.
③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거짓이다.
검증할 수 있을 때 유의미한 문장이라 했다.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경험될 수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짓 진술이다.
④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거짓이다.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진술이 있다.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므로 거짓인 문장은 무의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문 2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컴퓨터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나아가 컴퓨터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을까? 컴퓨터는 다양한 전기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물리법칙, 프로그래밍 방식, 하드웨어의 속성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특정한 초기 상태로부터 다음 상태로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태에서 세 번째 상태로 이동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즉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시스템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
>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하나로 고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시스템에는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그런 뜻에서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다.

<보기>

ㄱ.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다.

ㄴ.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ㄷ.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20. [정답] ④
[독해-추론] 난도 上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답이 보이는 추론 문제이다.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으로,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 a: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 받음 (p → q)
b: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 받음은 하나의 선택만 있음 (q → r)
d: 하나의 선택만 있음은 자유의지가 없음 (r → s)
c: 자유의지가 없음은 도덕 의무 귀속 없음 (s → t)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추론이 참, 거짓을 판별하면 된다.
ㄱ.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다.: 참인 진술이다.
(p → s) ∧ (p → t)
ㄴ.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참인 진술이다.
q → t, ~t → ~q : 참 (대우에 해당함)
ㄷ.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참인 진술이다.
r → s의 다른 표현일 따름이다.

윌비스 WILLBES